

게시판



낙산사 체험여행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체험! 여행단' (사진)을 모집한다. 여행지는 낙산사 등이며 1박 2일 코스로 70명 모집. 접수기간은 6월 19일까지. (02)725-2005
혜원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6월 25일 저녁 7시 부산시 연산동 혜원정사에서 혜원음악회를 연다. 가수 유익중 등이 출연하며 엄주제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051)866-7771

주의력 결핍아동 진단 광진구 보건소 정신센터에서는 6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주의력 결핍 아동에 대한 진단과 치료' 강좌를 개최한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로 질의응답과 무료 선별 검사도 실시한다. (02)450-1565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오대산 월정사는 단기출가학교 제5기생을 모집한다. 불교신자로서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모집인원은 60명. 신청기간은 6월 27일까지. (033)332-6664

템플스테이 체험단 장성 백양사는 템플스테이 체험단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만 20~60세.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 (061)392-7502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인덕노인복지회관(관장 도광)에서는 일요일마다 저소득층에게 도시락 배달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8181

20면 상식 퍼즐 정답

우	각	호	군		
담	우	국	충	정	
바		운		미	
라	면			소	풍
	도	갑	사		수
할	근		서		지
증	여	세	에	광	탄

'호국·보훈의 달' 軍 문화행사 풍성

나라사랑 키워요



"우와-버킹검공의 근위병 교대식보다 훨씬 더 멋지다"
 "영화에서나 봤던 삼국지에서 관우가 쓰던 청룡도도 무술시범도 하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은 나들이를 나온 어르신들과 소풍 온 초·중·고생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다. 모두들 이 시간에 진행되는 국방부 의장대의 의장사열을 보기위해서다. 취타대의 군악 연주와 전통의장대의 무술시범 및 여군 의장대 그리고 육·해·공 의장대의 의장사열 시범이 무리만큼 관람객들의 우려와 같은 합성은 하늘을 찌른다. 각 군과 경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멋진 의장대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 겸 국군 장병들의 멋진 의장사열도 보고 나라사랑의 정신도 키워 보는 어떨까.



④ 국방부 여군의장대의 '목총돌리기' 시범.
 ⑤ 청룡도로 검법을 선보이고 있는 국방부 전통의장대.

의장대 사열·전통검법 시범·군악대 연주 등 다채

●**서울 전쟁기념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밀리터리 이벤트로 자리매김 한 국군의장행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30분간 펼쳐진다. 조선시대 병영의 훈련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검법 시범, 육·해·공·해병대 의장사열, 여군들의 깃발과 목총을 이용한 동작시범, 군악대의 신나는 연주 등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행사 후 의장대원들과의 기념촬영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02)709-3114

●**진해기지사령부** 진해시민은 물론 불우이웃과 지체장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윤호근 준위 외 16명으로 구성된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는 6월 9일(오후2시)부터 17일까지 진해해양의료원, 진해재활원, 저도, 마산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서는 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 사열 시범 및 인기 가수 김옥순씨도 우정출연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055)549-4061

●**서울 동작동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의 자랑거리인 미리 에스코트 참배신청을 하면 의장대의 에스코트와 군악연주를 받으며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VIP 참배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동작동 현충원내에서 의장사열 시범도 선보인다. (02)905-5102

●**육군사관학교** 매월 1·3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시민들에게 육군사관학교 화방연병장을 개방해 생도들의 의장사열 시범을 실시한다. 1천 여 명의 생도들이 펼치는 분열은 이 행사의 다크호스. 육사 내에 있는 육군박물관과 육사기념관에 전시된 고대에서 현재까지의 각종 군사문화도 함께 볼 수 있다. (02)2197-6320

●**대전 현충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0분간 의장사열이 있다. 의장대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호국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042)822-0026

●**국립경찰대학교**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경기도 관내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교통이론 실습(행단보도 건너기, 교통표지판 익히기), 전동자동차 운전실습, 경찰헬기 및 비행기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031)284-5256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① 의장사열의 꽃 '파도타기' 시범.
 ② 진해기지사령부 군악대의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
 ③ 국립경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동차를 이용한 교통안전교육.

전시

현대 춤사위에 녹아든 불교

서울무용제, 26일까지 문예진흥원 대극장



파사 무용단.



김용철 씨 무용단.

불교를 소재로 한 현대무용이 6월 26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한국무용협회(이사장 김복희)가 주최하는 제 26회 서울무용제에는 파사무용단, 김용철 씨 무용단 등이 참가해 불교와 무용을 접목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파사 무용단(단장 황미숙)은 불경에서 모티브를 얻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6월 16·17일 오후 7시 30분 열리는 '목련(目蓮), 아홉번째 계단으로' 공연에서는 이승의 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지옥순례기가 몸짓으로 표현된다.

김용철 씨 무용단은 6월 19일(오후 5시)·20일(오후 7시 30분) '업경대(業鏡臺)'를 주제로 불교와 사마니즘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불교음악을 배경으로 탑들이 등의 불교문화를 무대위에 구성시켜 담아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용철 무용단은 6월 25·26일 오후 5시 '채화연풍- 승무의 삼절, 詩 書 畫'에서 시와 글, 그리고 그림을 승무라는 춤사위로 풀어내는 무대를 선보인다. (02)744-8066

강산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

법패와작법무보존회



2004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

법패와작법무보존회(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가호)는 호국의 달을 맞아 6월 25일 오후 3시 한중문화관 4층에서 '가신님을 위한 현충재'를 연다.

이날 무대에서는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의 천수바라춤 시연을 비롯해, 보존회 지도위원 해민·일원 스님 등과 인천시립무용단이 함께 하는 사다라니 바라춤·법고춤 공연 등도 선보인다. 또한 보존회 전수생들이 갖고 뒀는 공망무 나비춤·명발 바라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장대(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대극장 기능보유자)씨의 '가신님을 위한 대금산조' 무대도 준비돼 있다. (032)884-8904

방송 프로그램

13일 06:00 불교강좌	13일 08:00 명상음악산책
14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4일 15:10 명상음악
15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5일 14:25 불교TV 메디컬
16일 07:05 아침저널	16일 15:10 휴먼다큐
17일 09:05 행복한 미소	17일 16:40 향토음식기행
18일 14:05 진시문의 낭만라디오	18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19일 10:00 라디오 법회	19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6월 1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16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02)2004-8218-9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와 재질을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캐릭터가 새겨져 있다. 가격: 19,800원 상품문의: (02)2004-8218-9

이 시대 진정한 가족애를 코믹하게

간 큰 가족 감독: 조영남 출연: 신구, 김수미 상영시간: 100분 등급: 12세 이상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북한 현지 촬영을 성공리에 마친 지상 최대의 유쾌한 통일 자작극 영화 '간 큰 가족'.

아버지 김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면 50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희귀한 상속 조항에 따라 통일부로 전액 기부돼 버릴 수도 있는 유산을 사수하기 위해 가족들은 '통일이 되었단다'는 가짜 뉴스를 제작한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처럼 심해지던 아버지의 병세가 '통일이 되었단다'는 거짓말에 기적처럼 호전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옆친 데 달친 격으로 '평양 교예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는 가짜 기사를 본 아버지는 다짜고짜 '서커스를 보겠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결국 명석은 박상무와 친구 혼자까지 통일연극에 참여시키며 직접 평양교예단의 서커스 공연을 실현해 낸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아 가는데...

'간 큰 가족'은 유산상속과 남북통일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화면에 녹여낸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맥거핀(극적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단의 인물이나 사건일 뿐 그것이 주된 사건은 아니다). 50억을 상속받기 위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과정과 사건 속에서 끈끈한 가족 사랑과 효가 무엇인가를 코믹하게 담아낸 영화가 바로 '간 큰 가족'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